



성결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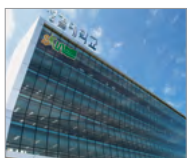
SUNGKYUL
NEWSPAPER

CONTENTS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4 2023. 3. 2.(목)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박미경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4 대학
슬기로운
성결생활



8 사회
유보통합,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10 문화
혐오의 시선에
직면하다



12 기획
백두산
폭발의 진실

본교 2022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본교(총장 김상식)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로서 2011년 처음 도입돼 5년 주기로 시행 중이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주요 정량지표가 포

함된 5개 영역에서 모두 충족해야 인증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인증 결과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과의 연계에 활용된다. 본교는 1주기와 2주기에 이어 이번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인증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인증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자격을 유지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본교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 및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고 2017년과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인증’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최근 주요 대학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받아 고등교육기관 기본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교육혁신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김상식 총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과 혁신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며 “2022년은 개교 60주년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융합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 한 해였는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연구·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ud0827@sungkyul.ac.kr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진행

2월 16일(목) 본교 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기 학위수여식(졸업식)이 진행됐다. 오전 10시에는 ▲신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기술대학 ▲대학원 전체 수여식이 이뤄졌으며 오후 2시에는 ▲인문대학 ▲IT공과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수여식이 이뤄졌다.

행사는 1부와 2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감사예배로, 이은성 교목실장 사회였다. 교수 및 내빈 입장을 시작으로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에 이어 축도로 마무리했다. 2부는 학위수여식으로, 윤민영 교무처장 사회였다. 김상식 총장의 훈사로 시작해 ▲상장 수여 ▲격려사 ▲축사 ▲축하 연주가 이어졌으며 학위 수여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총장상은 정보통신공학과 박수영 학우 외 12인이 성적 우수자상을 받았으며, 국어국문학과 배서연 학우 외 12인은 봉사자상을 받았다.

이후에는 학부(과) 별 단체사진 촬영이 있



었으며 기념관 5층과 중생관 앞에서 개인별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사진 촬영 후 졸업생들의 학위증 수령으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끝이 났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거침없는 청년정신
도전하는 기자정신
잘나가는 학보사

성결대 학보사에서
50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3/2 ~ 4/10
- 모집대상 |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 관련문의 | 성결대 학보사 인스타그램 (@sku_press)

본교, 일본 오사카관광대, 고베학원대와 현지 학생교류회 실시



본교(총장 김상식)는 일본 오사카관광대학교, 고베학원대학교와 현지 학생교류회를 실시했다. 지난 7월과 12월에 MOU를 체결한 이후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연구소장 이준서 글로벌물류학부 교수)가 구축한 컬처마이닝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온라인 교류회를 실시하고 이번에 일본에서 오프라인 현지 학생교류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간 4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해외대학과의 학생교류를 도모한 끝에 이번 현지 학생교류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교 입학교류처 조준범 처장은 “이번 단기연수 및 교류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대학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오사카관광대 국제교류센터 코모리 미에(小森三恵)

센터장은 “이번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생교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해외대학 학생교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욱 활발한 학생교류가 지속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베학원대 국제교류센터 오카베 요시히코(岡部芳彦) 센터장은 메타버스를 가미한 학생교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온·오프 병행 교육 및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학생교류뿐만 아니라 연구자교류에도 상호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3교의 학생교류회를 계기를 내년 3월 연구자교류, 4월 장기 교환학생교류, 8월 온·오프 인바운드 컬처마이닝 코스(Culture Mining Course, CMC)가 계획되어 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전준우 교수, 삼성SDS와 해운 운임 예측 방법 특허 출원

본교 글로벌물류학부 전준우 교수는 삼성SDS와 2023년 1월 4일 해운 운임 예측을 위한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의 명칭은 ‘해운 운임 예측을 위한 선박 정시성 기반 실 선복량 산출 방법 및 장치’다. 본 발명을 통해 블랙스완(COVID-19 등과 같이 발생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작아 예측이 어렵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해운 운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COVID-19 영향으로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명목 선복량에 비해 실제 가용한 선박 자원이 크게 부족해 되어 수요 대비 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해운 운임의 상승 현상에 주목하여, 명목 선복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던 선박 정시성(Global Schedule Reliability)을 기반으로 실 선복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해운 운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준우 교수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System dynamics in the predictive analytics of container freight rates” (Transportation Science, SCI), “Modelling cyclic container freight index using system dynamics” (Maritime Policy & Management, SSCI) 등이 있으며 삼성SDS와 2021년부터 해운 및 항공운임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본교 일본 (주)파소나 아와지섬 지역재생 프로젝트팀과 현지 교류회 실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에 파견된 글로벌경영기술대학 학생들이 (주)파소나그룹이 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와지섬 프로젝트인 젠보세이네이(禅坊靖寧) 시설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의 컬처마이닝 코스(Culture Mining Course, CMC)를 통해 동시시설을 메타버스 세계에 구현해 왔는데, 이번 연수에서 그룹사 메타버스티م과 시설 운영팀과의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 이준서 연구소장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주)파소나의 아와지섬 지역 재생 프로젝트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아와지섬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남부 마키야(南部真希也) 상무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기관의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소나의 아와지섬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본사 기능은 물론 그룹사 직원 1200명을 섬에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와지섬의 폐교, 농가, 토지 등을 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및 리조트지 등을 개발하면서 지자체 및 정부와 함께 공격적인 지역 창생(創生)에 도전하고 있어 그 성공 여부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



본교(총장 김상식)는 13일 교육부 주관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일종의 Software AI Camp로서, 민·관·학이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달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을 모집해 방학중 SW·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디지털 새싹 사업 운영기관에는 전국 59개 대학과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본교는 XR 센터,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융합학부, 산학협력단 등이 모두 협력하여 디지털 새싹 캠프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본교 XR 센터장 박성준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SW·AI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성결대학교를 경기 서남권의 XR 게임 분야 특성화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즐거로운 성결 생활

#두근두근 캠퍼스 라이프 시작!

어느덧 캠퍼스에 활기가 차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 라이프를 맞이한다. 그러나 학교 구조가 익숙한 재학생과 달리 신입생은 건물 사이를 헤매는 난관을 겪을 수 있다. 필자 또한 처음 등교하던 날 영암관의 위치를 알지 못해 지각 위기에 놓인 경험이 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즐거운 성결 생활을 즐기기 위해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라!

중생관은 사회과학대학 건물로 영암관 옆 화색 건물이다. 학교 가장 안쪽에 있으며 지하에는 ▲학생 식당 ▲편의점 ▲동아리실이 있다. 1~4층에는 강의실 및 외래 교수실 등이 있으며 5층에는 학과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다. 중생관 3층에는 영암관 3층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으며 기념관 2층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중생관 오른쪽에 있다.



중생관



영암관

영암관은 인문사범대학 건물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다. 정문에서 왼쪽으로 쭉 직진해 오르막길을 오르면 바로 보이며 성결관과 학생회관 사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도 있다. 영암관은 강의실을 제외하고도 ▲디지털 피아노실 ▲교구 제작실 등이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교양 수업 또한 영암관에서 진행되며 3층 끝에는 중생관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학생 복지 건물로 풋살장 바로 위쪽에 있다. 1층에는 ▲학생지원과 ▲PC와 인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잡카페 ▲음료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라운지 ▲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한 동아리실 등이 있다. 2층에는 ▲학보사실 ▲총학생회실 ▲대의원회실 ▲보건진료소가, 3층에는 ▲헬스장 ▲무도실 그리고 4층에는 체육관이 있다. 이 외에도 각 과방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

기념관은 신학예술대학 건물로 운동장을 기준으로 정면에 보인다. 1층과 2층은 주로 음악학부가 사용하며, 1층에는 ▲오딧세이21 ▲학생 쉼터가 있다. 쉼터에는 '타임 투 베이크' 빵집과 SKU 카페가 있으니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곳을 방문하자. 2층에는 홍대실홀 등이 있다. 3층과 4층은 연극영화학과와 뷰티디자인학부가 주로 사용한다. 특히 3층은 ▲언어교육원 ▲국제교류과의 행정부서가 있으며, 4층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대회의실이 있다. 5층에는 채플이 이뤄지는 ▲대강당 ▲교목실이 있다.



성결관



성결관은 공과대학 건물로 성결 유치원 옆 주차장 앞에 있다. 1층은 학생회관을 향하는 계단과 연결돼 있지만 본인이 1층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지하 1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 외에도 성결관 1층 내부와 앞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다.

재림관



재림관은 대학 본부로 정문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흰색 건물이다. 1층에는 ▲입학과 ▲학사관리과 등의 행정 부서가 있으며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사관리과에서는 ▲학점 ▲휴·복학 ▲학사경고·제적 ▲복수·부전공 ▲전과 등 학적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니 알아두자. 성적 무인발급기와 ATM기 또한 1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 2층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설관재과 등의 행정부서가, 3층에는 ▲총무과 ▲교육혁신센터 등의 행정부서가 있다. 6층에는 ▲창업보육센터 ▲예비군대대가 있어 본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재림관에서 담당한다.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은 본교 도서관으로 재림관 오른쪽에 있는 정면이 유리로 된 건물이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 QR 코드가 필요하다. 1층에는 책 반납을 할 수 있는 ▲이용자센터 ▲일반·노트북 열람실 ▲XR센터 ▲SKU 카페 등이 있다. 특히 일반/노트북 열람실은 입장 전에 무인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미리 좌석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알아두자.

3층과 4층에는 자료열람실이 있으며 5층에는 ▲연속간행물·참고열람실 ▲제본간행물실이, 6층에는 ▲아랍국제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다. 학술정보관 이용을 위한 ▲이수교육 ▲그룹스터디실과 회의실 예약 ▲웹 DB ▲e-Book 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그 외 알아둬야 할 점

- 재림관은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만 대학원 강의실도 있다.
- 운동장에는 복합 인쇄실이 있다.
- 각 과 교수 연구실과 행정실은 대학별 건물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도 있으니 찾아본 후 방문하자.
- 기념관 뒤편인 '타임 투 베이크'는 학우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아 금방 팔리니 되도록 이른 시간에 방문하자.
- 행정 부서 업무시간은 평일 9:00~17:00까지며 방학 중에는 10:00~16:00까지다.
- 보건 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9:00~18:00까지며 방학 중에는 10:00~16:00까지다.
- 학술정보관 운영시간은 평일 9:00~21:00까지며 방학 중에는 10:00~16:00까지다.
- 학생 식당 운영시간은 11:00~18:30까지며 브레이크 타임은 15:30~16:30분이다. 방학 중에는 11:00~15:00까지 운영한다.
- 편의점 운영시간은 8:30~18:00까지며,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성결대 내가 접수하겠어!

#학점 챙기기

재학생이 추천하는 꿀팁 첫 번째는 바로 '학점 챙기기'다. 본교는 '성결대학교 전자출결' 앱을 설치해 출결 체크를 한다. 이때 수업 시작 후 15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주니 이 점을 참고하자. 하지만 직접 호명해 출결을 체크하는 교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은 OT 시간에 미리 알아둬 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더불어 '3 결석 2 지각'까지는 F 학점을 받지 않지만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은 학우들은 최대한 결석도, 지각도 하지 말자!

자신과 맞는 교수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교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의평에 들어가면 수업방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학우들이 남긴 평을 보고 시험 난이도나 조별 과제, 토론 유무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본교 SKY 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 전에 수업 계획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 조사는 필히 해두자.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교수 강의는 수강 신청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맞게 수강 신청 순서를 숙지하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보자.

#포털 이용하기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PORTAL'이 보인다. 이를 클릭하면 SKY 시스템, 사이버캠퍼스 등의 아이콘이 뜬다. 특히 SKY 시스템은 ▲학적 ▲수업 ▲성적 ▲등록 ▲장학 등의 모든 학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변경 ▲휴학 ▲복수·부전공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성적조회 ▲학점포기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 외 ▲모의토의 신청 ▲생활관 신청 ▲국제교류프로그램지원 등도 가능하다.

사이버캠퍼스는 본인의 수강 강좌와 연동되는데, 만일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는 교수가 있다면 대부분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된다. 과제 제출 또한 이곳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한 비교과 강좌도 올라온다. '코스모스'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이용하기 편리하니 알아두자.

통합역량개발시스템은 ▲직업기초역량진단 ▲학습역량진단 등을 할 수 있으며, 1학년은 필히 학습역량진단 등을 해야 하니 미리 접속해 이를 확인하자. 이뿐만 아니라 ▲CDP ▲전문가 상담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채용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다.

#Office 365 이용하기

본교는 Office 365 설치를 통해 ▲Word ▲Excel ▲PowerPoint 등 Microsoft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왼쪽 상단의 'WEBMAIL'을 클릭해 포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이때 MS 및 구글에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은 상태면 화면의 아이콘이 흑백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클릭해 가입과 동의 후 계정을 생성하자. 이후에 모든 아이콘이 컬러로 보인다면 'Office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됐다면 Office를 시작해 Office 365에 사용하는 계정을 @office.sungkyul.ac.kr로 로그인해서 유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대학 생활 알차게 보내기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동아리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 본교 동아리는 ▲기독분과 ▲문화분과 ▲예능분과 ▲체육분과 ▲학술/봉사분과로 나뉜다. 만일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동아리 페스티벌과 축제에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마음껏 뽐낼 수 있으니 학교생활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필자는 현재 학보사 부원인데, 학보사는 사실 동아리가 아닌 본교 홍보미디어센터에 속한 기관이다. 동아리가 아님에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작문 실력도 늘어 보고서 과제에 도움이 됐다. 그러므로 기사, 글 쓰는 일에 흥미가 있거나 학우를 사귀고 싶은 이들은 학보사에 들어오기를 추천한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미리 경험해 보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불확실한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직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적성을 쉽게 알 수 있을까?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직접 겪어 보며 경험을 쌓아 적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험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청 잡아바 어플라이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을 지원해도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바로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취업 지원은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만 명을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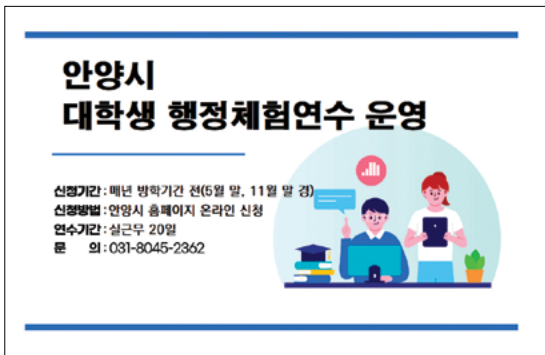
만 명으로 대상으로 두 배 늘렸고 투자액은 553억 원으로 10배 증액했다. 이는 직무 경험이 취업 트렌드로 자리 잡아 중요한 스펙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년 지원 정책을 늘리기 시작했다.

경기도청은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등장시켰다. 이른바 '잡아바 어플라이'이다. 잡아바 어플라이는 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으로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이 늘어나자 경기도청 역시 '기간제 스마트 채용 통합 접수 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제시한 것이다. 잡아바 어플라이는 ▲취업 지원 ▲컨설팅 ▲면접 지원 ▲NCS 교육 무료 동영상 제공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구직 방안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용자가 원하는 직무와 지역 등 인재 정보와 기업을 맞춤 연결해 추천하는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기간제 일자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을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간편함을 제공하며 취업 특강, 취업 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주기도 한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는 중소기업 취직 정보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소방서,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 기간제 정보도 제공한다.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에는 60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2년 9월까지 280개 공고에 2,855명이 참여해 일자리 매칭률이 80%에 육박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올해는 시청이나 군청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잡아바 어플라이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지역을 설정해 기업과 직접 매칭해 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확인하는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경험을 늘려보는 귀중한 기회를 얻어 보자.

#안양시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대학생이라면 방학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행, 자격증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대학생 행정 체험 활동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장 인턴 활동

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생 행정 체험은 대학생들에게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취업 역량 강화가 목표인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과 11월이며 실근무일은 20일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 중인 대학교 재학생 (단 해당 학기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 휴학생은 지원 가능)이며 ▲시청 ▲구청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방학기간 동안 행정 체험을 한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행정 체험을 하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의 신청은 방학 직전 6월, 11월 등에 받으니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자!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대기업은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많고 회사 자체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도 풍부한 편이다. 또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도 많이 구축돼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인턴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정보를 얻거나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중소기업 탐방하는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이 있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중소, 강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해결과 노동 시장으로의 조기 입직 유도가 목적이다. 이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기업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 ▲취업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돼 1일 5시간 이상, 5일 이내로 진행된다. 2유형은 직무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직무 이해(CEO·전문가 특강 등)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 강화(모의면접, 멘토링 등) 순으로 구성돼 1일 5시간 이상, 8~10일 이내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 인원은 1만 명이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중반부에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 프로그램 목록이 마감일에 따라 정렬돼 있다. 여기서 더 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위탁 공모회를 통해 선발되며 해당 기관의 직무 체험 시 수료증이 나온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 체험을 통해 다양한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받은 수료증은 하나의 스펙이 되기도 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경험과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직무 체험 후기와 우수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 나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직의욕 고취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별도의 일 경험 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며 일 경험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참여 유형은 훈련 연계형과 체험형으로 나뉜다. 훈련 연계형은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을 향상한다. 지원 기간은 1~3개월, 일 경험 시간은 1일 4~8시간이다. 참여자 수당은 월 최대 140만 원이다. 체험형은 직무 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 지원 기간은 20~30일이며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 수당은 1일 최대 22만 원이며 참여 기업은 NGO, 공공기관 등 다양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집 기관과 참여 기한이 기재돼 있다. 홈페이지 자체의 접근성이 편리하니 이를 참고해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경험해 보자.



#안양시 청년 구직자 직장 체험



본고가 위치한 안양시는 청년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청년을 위한 안양랜드, 취업 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인다. 이처럼 안양시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경험 정책 중 안양시 청년 구직자 직장 체험에 대해 알아보자.

안양시 청년 구직자 직장 체험은 청년 구직자가 시 산하 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에서 관심 있는 업무 분야를 실무 체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안양시의 산하 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에서 6개월 간의 업무를 맡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이 모집 공고 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안양 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시민프로축구단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산하 기관과 민간 위탁 기관을 통해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양시청 > 시청 소식 > 고시/공고 >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 체험을 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직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 - 김다는 수습기자 kjij99@sungkyul.ac.kr

사진 - 안양시청, 경기도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참조] 경기도 일자리 재단

우리의 ‘국민연금’ 안전한가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의 해인 2023년에 들어서며,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인 ‘국민연금제도’가 고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호에서는 모두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그게 뭔데?

국민연금은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복지제도다.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즉,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시초는 19세기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다.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한편, 전쟁을 끝낸 젊은 군인들이 갈 곳을 잃는 문제가 생겨났다. 프랑스 파리를 맞본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자유를 만끽하려 했으며, 군인들은 점차 정치적, 사회적 불안 요소로 변질됐다. 철혈재상은 늙은 노동자를 고향으로 보내고 젊은 실업자를 빈자리에 넣는 방안을 생각해냈고 동시에 늙은 군인 및 노동자를 집으로 보낼 ‘당근’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근’의 역할로써 정년과 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비스마르크가 만든 정년은 65세로, 이는 많은 나라에서 고령, 정년, 연금 수령 나이의 기준으로 점차 자리 잡았다.

#내가 낸 돈이 고갈된다고?!

연금제도가 전 세계에 확산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회연금 등에서 대동소이한 문제를 노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자와 자금 고갈이다. 국민연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율보다 가져가는 소득대체율이 더 높은 구조를 꾸준히 이루고 있다. 설계 당시, 초기 가입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의 혜택을 누렸다. 초기에는 받아가는 연령대 인구가 적고 내는 인구수는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받아가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 재정수지 전망 >

구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값은 적립기금 규모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더불어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55조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런 구조 탓에 2070년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총 재정수지는 242조 7,000억원 적자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나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선진국 수준인 18%로 올리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월급에서 더 떼가는 보험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인 또한 여론에 민감하기에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도 있으나 여러 논란이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돈을 내는 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경우, 이전 수령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중대한 책임감

전망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떠나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 재정 방식의 변화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동일한 해에 돈을 걷고,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

국민연금법 제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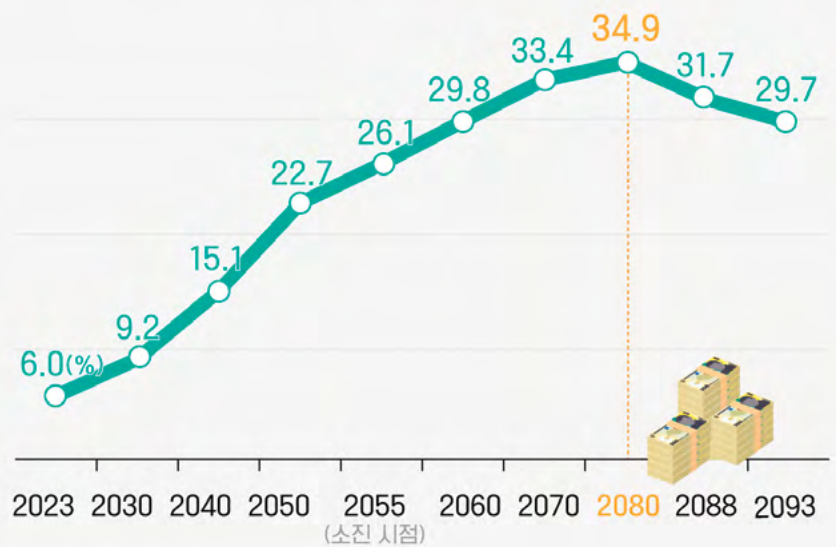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KBS

따라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는 방안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가 커지며 부과식으로 바꿨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했던 선진국들은 적립된 기금이 없어도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말을 덧붙였다.

부과식 운용 시 필요한 보험료율 추이(예상)



KBS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그러나 부과식 운용 시 9%에 불과한 현재의 보험료율이 2080년에는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을 수 있다. 위의 사진의 경우, ‘현행 제도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를 동력 삼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논의의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데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55차 재정계산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우려를 감싸 안았다.

간단치 않은 문제인 만큼 이견이 많아 매번 조정이 쉽지 않았던 국민연금, 정부가 이번에는 ‘난제 중 난제’로 꼽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 - 정예솔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KBS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중앙일보, KBS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시아경제

유보통합,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보육이나, 교육이나. 20년 넘은 난제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사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빗발치는 교사 처우 및 예산 마련 항의 속에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

올해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새로운 제3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2026년부터는 입학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조정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많은 이들의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유보통합의 논의 시초는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유보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돼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실패했다.

이에 18년이 흐른 현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개혁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2025년부터 2단계로 나눠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단계에서는 학부모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며,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현재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빈번하나, 사립 및 공립 기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을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약 월 13만 5,000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드는 반면,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다. 이는 ▲교사 자격 ▲처우 ▲시설 기준 차이에 따라 교육과 돌봄 환경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초래하기도 했다. 실제로 만 3세 유아를 키우는 한 여성은 “어린이집은 조금 더 돌봄의 기능이 강한 거 같고 유치원은 좀 더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걱정을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사실상의 무상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23~'24)	2단계('25~)
	■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 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조직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통합 지원
재정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23)	제·개정 법률 시행

2025년부터는 2단계로 들어서 새로운 교육 및 보육 기관이 운영되며 유보통합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구조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를 고려해 0~2세, 4~5세 등 나이에 따라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또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핵심인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교육과정과 입학 시스템을 통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에 관해 정부는 “2026년 완성 기준으로 현재보다 매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6,000억 원 안팎, 시설 안전 개선비 8,000억 원 내외, 유아교육비나 방과 후 돌봄 등을 포함해 1조 1,000억~1조 2,000억 원 등 총 2조 1,000억~2조 6,0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식을 전했다.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교사 자격과 처우의 문제, 해결하라!

유보통합의 걸림돌로는 교사 자격과 처우이다. 이 중에서도 교사통합전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난제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처미통합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재정립 ▲시설과 내부환경 기준 등으로 매번 좌초됐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을 비롯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고졸도 가능하다. 처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2017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초임 유치원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약 225만 원, 사립 183만 원이었다. 2018년 조사에선 초임 어린이집 교사의 월 보수는 국공립 약 203만 원, 민간 1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추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교사의 영·유아 돌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유치원 교사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전면 철회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인력 및 예산 확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의 유치원 교사가 참석했다.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게 이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보낸 공개 질의에선 “30만 보육 교사를 교직 이수 없이 단기 연수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예비 교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고, 교육의 질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금도 임용 시험 경쟁률이 엄청난데, 단기 연수로 자격을 주면 예비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0~2세, 3~5세를 각각 보육과 교육 기관으로 나누면, 기존 0~5세를 대상으로 하던 어린이집은 수요자가 크게 줄게 된다. 교육부는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 기관 분리, 교사 자격 통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통합은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하며 하향 평준화가 지향점이 될 순 없다”면서도 “교원단체와 소통해 공정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반발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송파위례유치원과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을 하더라도 자격과 신분은 별개로 국공립 교사의 교육공무원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부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유보통합’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하기 위해선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은 물론 시설 기준 통일까지 이뤄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건물과 놀이터 면적 기준을 포함해 CCTV 설치 의무까지 달라, 통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 부담 역시 지방교육재정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현실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다.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글- 정예솔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교육부, 연합뉴스
[참조] 전자신문, 한스경제, KBS뉴스, 이데일리



독립을 외쳤던 민족 대표, 유여대

우리 모두 1919년에 3·1운동이 펼쳐진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 속에서 민족의 저항을 상징한다. 이때 민족 대표로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낙포(樂圃) 유여대'는 33인 중 한 사람으로 3월 1일 태화관 독립선언식에 참석하는 대신 평안북도 의주에서 만세 운동을 준비 후 직접 이끈 인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여대의 그날에 대해 알아보자.



#참다운 인격을 갖추라

1878년 평안도 의주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청일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가야만 했다.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1895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한문 서당을 열어 학동들에게 한학(漢學)을 가르쳤다. 그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학동들에게는 참

다운 인격을 갖추는 것을 강조해 모범이 되고자 했다.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20세가 된 1898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위대모(魏大模, Whittemore, N. C.)에게 세례를 받았다. 1899년에는 의주 최초 근대 학교인 일신학교를 설립해 한문 교사로 재직했다. 학문을 알리고 가르치는 열정을 지닌 그는 1902년에 의신소학교를, 1905년에는 양실학원을 세운 후 1908년 두 학교를 양실학원으로 통합했다. 1915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 후 목사가 돼 의주동교회 담임목사를 맡았다. 목사가 된 후에도 야학을 개설해 문맹 퇴치와 민중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독립선언을 한 것은 3월 1일 오늘이라

1919년 유여대는 신천에서 열린 평북노회를 방문해 이승훈과 양전백 등을 만났고, 그들에게 3·1운동 참여 권유를 받았다. 의주로 돌아온 그는 김두칠과 정명채 등과 함께 읍내에

수교회당 부근 공터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3·1독립선언서 발표 소식을 접한 그는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해 3월 1일 양실학교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약 800명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이때 서울에서는 그의 이름이 들어간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지만, 유여대는 의주에서 직접 선언서를 발표해 만세 운동을 지휘했다. 독립선언서가 끝난 후 민중은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했고, 유여대는 소형 태극기를 배포해 만세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국권 회복의 뜻은 틀림없다

유여대는 시위에 참여하기 직전 한병에게 체포돼 3월 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취조받은 후 민족 대표의 신분으로 경성지방법원에 기소됐다. 1920년에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21년에 출옥하게 된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이 만세 운동의 주도자였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었다. 다음은 판사와 유여대의 재판 중 일부이다.

“어찌하여 일본의 주권을 이탈하고 조선을 독립시키려고 하는가?”

“조선 민족이 자유롭게 발달하기 위해 독립을 희망한다.”

“그대는 정치에 대해 불평이 있는가?”

“독립을 희망하는 것은 조선인에 대해 자유를 주지 않는 데 불평이 있는 까닭이다.”

#누가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2년 징역 끝에 유여대는 다시 의주동교회 목사가 됐으며 폐교된 양실학교를 재건했다. 1931년에는 신의주 백마교회 목사가 됐지만 1934년에는 병을 얻어 휴양하게 된다. 이때 그가 집필한 책 중 <강대지남(講臺指南)>은 설교집이며, <면무식(免無識)>은 각종 서식 작성법과 상식 등을 설명한 책으로 교육자로서 민중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유여대는 유일하게 민족 대표 중 직접 현장에서 독립선언식을 한 후 시위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독립선언식과 재판 중 '자유와 평등'이라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쳤다. 살아생전 민족 대표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자 한 그의 노력은 마침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통해 증명됐다.

유여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1절을 맞아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며 감사를 전하자.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서울시 /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서울현충원

걸어서 지역속으로

어여 와유, 논산으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논산시는 육군 훈련소가 있어 유명하다. 백제시대 당시에도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논산에는 다른 멋진 관광명소가 많다. 어떤 곳이 있는지 이번호를 통해 알아보자!

#새콤달콤! 논산 딸기 축제

이전하면 쌀, 횡성 하면 한우처럼 각 지역별 떠오르는 대표 특산물에 있다. 이처럼 논산 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산물은 바로 딸기이다. 논산 딸기는 50여 년의 재배 역사 뿐만 아니라 농토와 물, 일조량 등의 조건이 딸기가 자라기에 매우 적합해 향기와 당도가 일반 딸기와는 다르다. 이 논산 딸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논산 딸기 축제가 오는 3월 8일(수)부터 3월 12일(일)까지 논산시민공원 및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딸기 축제는 4년 만의 대면 축제로 주제는 '세계 딸기 Expo를 향한 달콤한 유혹'이라고 한다. 목표가 세계인 만큼, 이번 해에는 ▲딸기수확 체험 농장 ▲헬기탑승체험 ▲다양한 체험부스 등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다. 딸기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2023 논산 딸기 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홍보영상과 그 외 행사 개요 등을 살펴보자.

#벚꽃과 산책하기! 관촉사

관촉사는 은진미륵이 있는 사찰로, 은진미륵은 국보 제323호 석조미륵보살입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며 높이가 무려 18m이다. 미륵보살은 석가에 이어 미래에 출현하는 부처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세를 구원하는 희망과 신앙으로 수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촉사의 석등은 금당이나 석탑 앞에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특이하게도 은진미륵 가까이에서 있어 은진미륵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은진미륵만큼이나 멋진 관촉사의 '벚꽃 터널'은 벚나무가 줄줄이 들어선 모양이 마치 터널처럼 보여 생긴 단어이다. 벚꽃이 만개하면 많은 이들이 산책코스로 찾는다. 이곳에서 은진미륵에게 안녕을 염원 후 소중한 사람들과 벚꽃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아름다운 야경으로 하루를 마무리! 탑정호

탑정호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이며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특히 탑정호에는 탑정호소풍길과 탑정호소변생태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이 맑은 물 너머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노을은 논산이 '노을의 고향'임을 일깨워 준다. 노을이 진 후 탑정호 출렁다리라는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인다. 미디어파사드란 건물 벽을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건물 벽에 LED 등의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한 층 더 발전한 것이다. 이를 호수 주변 디지털 조형물과 LED 조명의 아름다운 빛으로 구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수변 생물과 산책 후 야경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탑정호를 방문하자.

개강을 맞아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것이다. 또한 바쁘게 학기를 보내다 보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한 학기를 논산 여행으로 시작해, 나 자신에게 원동력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 만약 당신이 개강 준비에 바쁘다면, 학기 중에 이곳에서 잠시라도 숨을 돌려보자. 필자가 소개한 곳 외에도 드넓게 펼쳐진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생각을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참조 - 논산문화관광, 대한민국 구석구석, 2023 논산딸기축제, 시사상식사전



혐오의 시선에 직면하다

고정관념이 모이면 차별을 만든다. 차별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면하고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혐오의 시선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을까? 이번 394호에서는 영화 속에서 진정한 나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위대한 쇼맨

개요 ▲ 영화

개봉 2017.12.20.

출연 배우 휴 잭맨, 잭 에프론,
미셸 윌리엄스, 레베카 퍼거슨,
젠데이아

#신분의 차이

바넘은 가난한 양복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상류층 집안의 양복을 맞춰 주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넘은 상류층 집안의 딸인 채러티와 사랑에 빠진다. 채러티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채러티와 바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이어갔다.

그러나 바넘은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방황한다. 그는 거리를 떠돌며 가난에 허우적거리다 숙식을 제공하는 철도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이후 성실하게 일한 바넘은 채러티에게 정식으로 찾아가 청혼했고, 그 둘은 가난한 삶 속에서 사랑을 키워 두 딸을 얻는다. 그러나 가난의 꼬리를 자를 순 없었다. 바넘의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바넘은 두 딸에게 조명을 보여 주다 문득, 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바넘의 호기심 박물관'을 설립한다.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는 모형의 단두대를 포함해 다양한 것을 전시했음에도 단 하나의 표도 팔지 못할 만큼 인기가

없었다. 딸들은 바넘에게 박물관에는 살아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유니콘과 같은 기상천외한 것이 필요했다. 이때, 바넘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다.

#숨겨진 자들의 반란, 서커스 쇼

바넘은 왜소증 남자인 찰스를 찾아가 자신의 박물관에서 쇼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찰스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바넘은 조롱거리가 아닌 나폴레옹과 같은 군인으로서 사람들이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바넘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 ▲살이 찌 풍선 같은 몸을 가진 사람 ▲한참을 울려다볼 만큼 키가 큰 사람 ▲공중곡예를 하는 사람 ▲알비노에 걸려 온몸이 하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부터 바넘은 서커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바넘의 기이한 생각들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영국의 여왕 앞에서 공연할 기회까지 손에 넣게 된다.

그러나 상류층의 파티에 초대된 서커스 단원들은 혐오의 눈초리를 받아 파티를 즐

기지 못한다. 이때, 단원들은 "This Is Me"라는 노래를 부른다. 단원들은 남들과는 다른 겉모습으로 차별받으며 숨어서 살아갔지만 이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지낼 것임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승승장구하던 바넘의 서커스는 어떻게 흘러갈까? 과연, 그의 행운이 영원할까?

〈위대한 쇼맨〉은 영상미와 연출, OST가 돋보이는 영화다. 특히 OST 타이틀곡 "This Is Me"는 위대한 쇼맨 영화의 정체성이다. 또한, 위대한 쇼맨의 OST는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 주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현대인에게 관찰되는 위로와 격려를 건넨다. 온몸에 털이 나든, 키가 너무 크거나 작든 상관없다. 남들보다 빠르거나 느려도, 혹은 출발선이 달라도 상관없다. 모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차별보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 사랑을 형성하고, 위대한 쇼맨의 서커스단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표출하면 어떨까?



제목 알라딘

개요 ▲ 영화

개봉 2019.05.23.

출연 배우 미나 마수드, 나오미 스코트,
윌 스미스

#능동적인 여성의 등장

아그라바 왕국의 좀도둑 알라딘은 영리하며 잔머리가 좋다. 그는 평소처럼 시장을 구경하던 중 한 여인이 어린아이에게 빵을 주는 모습을 목격한다. 여인은 아그라바 왕국의 공주 자스민이었다. 자스민은 민생에 관심이 많아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상인은 자신의 빵을 어린아이에게 대가 없이 준 자스민에게 화가 나 팔찌라도 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알라딘이 자스민을 도와주며 둘의 인연은 시작된다. 알라딘은 자스민의 반짝거리는 팔찌를 보고 공주의 시녀라고 착각한다. 한편, 왕자가 청혼을 하기 위해 왕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자스민은 급하게 궁으로 돌아간다. 여러 왕자의 청혼을 받았지만 자스민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뿐이었으며 자신의 외모와 결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스민의 꿈은 술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상 여자가 술탄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자스민의 꿈은 꺾이게 된다.

영화 〈알라딘〉, 영화 〈자스민〉?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마법의 양탄자를 탈 것을 권유한다. 양탄자를 탄 자스민은 아름다운 세

상에 감탄하며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때 알라딘과 자스민은 "A Whole New World"라는 노래를 부른다.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을 알았다"라는 가사는 술탄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표현했으며, "환상적인 장소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가사는 자스민과 알라딘의 사랑을 표현했다. 한편, 자파는 이들의 평화를 위협하며 술탄의 자리를 노린다. 자파는 자스민에게 꽃처럼 조용히 살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자스민이 침묵하고 자신의 아내가 되면 완벽한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스민은 굴복하지 않는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Speechless"다. 여성답게 살라는 말에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다짐을 하는 가사들이 돋보이는 노래이다. 자스민은 과연 술탄의 자리를 노리는 자파를 물리칠 수 있을까?

1992년 개봉한 원작에서 자스민은 왕국의 2인자 자파를 속이기 위해 키스를 하고 모래시계에 갇혀 알라딘에게 구조된다. 이는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에 알라딘이 자스민을 구출하는 모티프다. 반면에 실사 영화에서는 자스민이 아버지 술탄과 알라딘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서 알라딘과 자스민의 관계는 단지 연인이 아닌 협력자의 관계를 보인다. 알라딘과 자스민이 평등한 관계를 지닌 것이다. 실사 영화 속 자스민의 모습은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디즈니가 여태까지 선보인 왕자와의 결혼 서사와는 비교된다. 단순히 결혼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준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서커스단과 〈알라딘〉의 자스민처럼 나만의 본질을 형성하며 맞서 싸우는 것이 어떨까? 모든 인류가 환경, 신분,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글 - 김다은 수습기자 kjjg99@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사진
[참조] 조선일보

보다 행복하게, 보다 아름답게 ‘적정기술’

세상에는 기술의 발달로 편리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적정기술’ 이번 호에서는 이웃과 마을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적정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기술’ 이는 적정기술의 시조다.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다. 본 기술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량생산제품과 달리 현지의 재료와 적은 자본,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활용해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한다.

당시 슈마허는 선진국과 제 3세계의 빈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간디의 자립 경제 운동과 불교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올바른 개발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간 규모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마허는 이러한 중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3세계의 빈곤 문제는 물론, 자기 파괴적인 거대 기술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덧붙여 “첨단기술의 눈높이를 낮추고, 저급기술의 눈높이는 높여서 그 둘의 수준을 맞춘 ‘중간기술’을 적용한다면, 개발도상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널리 읽히며 중간기술 운동은 활발해졌다. 당시 활동가들은 ‘중간’이라는 용어가 자칫 기술적으로 미완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첨단 기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적정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 3세계의 발전 동력이 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과학기술을 앞세운 경쟁에 나서고 일본과 독일이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6년 슈마허가 설립한 중간기술개발 집단은 제 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이로써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한 어려움 또는 가난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인간적인 기술로서 슈마허가 주장하던 ‘적정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에는 제 3세계뿐 아니라 선진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안기술로서의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9년 미국에는 신연금술연구소, 패럴론연구소 등이 설립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물 ▲에너지 ▲건축과 관련된 대안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차원에서 적정기술 관련 기관과 부서가 만들어졌다. 에너지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카



터 정부는 국립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백악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대안기술 운동은 각 시기별, 장소별 그리고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소 굴곡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높아지며, 이와 함께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 또한 점차 증대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면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제 3세계에 적합한 기술이자 선진국의 거대기술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바람직한 기술로 자리잡은 ‘적정기술’ 또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적정기술 운동은 한 차례 몰락을 겪는다. 우선, 적정기술이 제 3세계의 빈곤 문제 등 당시의 경제 구조가 야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대규모 공업시설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과 대만 등의 사례가 밝혀지면서, 소규모 경제를 추구하는 적정기술의 철학이 제 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당시의 경제 구조가 갖는 취약성을 지적하는 슈마허의 문제 제기가 힘을 잃으면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속에서 거대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과제들이 빈번히 채택되면서 작은 규모의 기술을 지향하는 적정기술 운동이 쇠퇴하게 됐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다

적정기술 운동이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뒤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식이 부상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적정기술 운동에서 기존의 인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고 시장 지향적 관점이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국제개발기업(IDE)의 설립자 폴 폴락은 ‘기부의 방식’이 적정기술 운동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지적하며, “적정기술은 좋은 의도를 가진 서툰 수선쟁이보다는 냉정한 기업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락의 운동은 그간 기술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소외된 90%의 빈곤 계층을 자신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으며 어떤 의향이 있는지 배움으로써 적절한 가격의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빈곤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규모의 저렴한 기술을 설계하는 폴락의 운동은 지불 능력이 막강한 소수의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삼아 온 기존의 상품 디자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디자인 혁명’인 것이다.



#따뜻한 가치를 생산하는 ‘적정기술’

적은 에너지와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을 높이고 환경 변화와 위기, 재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정기술’은 현대에도 ▲도시 ▲농촌 ▲생태 ▲건축 ▲에너지 ▲공예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활용되고 있다.

‘쏘켓’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에 3~4시간씩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축구공 모양 발전기다. 공 안에 작은 소켓이 들어있어 낮에는 일반 축구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밤에는 LED 램프를 연결해 전구로 활용하는 등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낮에 공을 차면서 발생한 운동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바뀌어 공 안에 저장된다. 쏘켓은 현재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밤에 공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발 없이 살아가는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은 3억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발이 있다고 해도 빠른 성 장속도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맨발로 다니거나 신발 앞코를 찢어 신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라는 신발’이라고 불리는 이 신발은 연결 버튼을 이용해 최대 5개의 사이즈로 변형할 수 있으며, 거친 환경에서도 5년은 거뜰히 버틸 수 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누군가의 삶에 적용돼 따뜻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적정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나무위키, 뉴시스, 문화뉴스

[참조] 문화뉴스, 에듀진, 카이스트신문



백두산 폭발의 진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백두산 폭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백두산의 분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 징후를 계속해서 보이는 백두산이 2025년에는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백두산이 폭발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을 이번 호에서 알아보자.

#백두산

백두산은 높이 2,744미터로 북한과 중국 국경 경계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화산을 활동에 따라 분류했을 때 백두산은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활화산이란 현재 활동을 하는 화산을 의미한다. 분화를 멈추고 활동을 중단한 휴화산으로 분류된 적이 있으나 계속된 이상 징후와 활화산과 휴화산의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활화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두산의 이상 징후와 2025년 분화설

백두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최근 들어 계속된 이상 징후와 폭발의 전조 증상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3년부터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화산 가스로 인해 말라가고 있으며 천지 주변의 수온은 83도까지 높아져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 외에도 최근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100년 주기로 폭발한다는 주장이다. 크고 작은 폭발이 100년마다 이어진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시기는 1925년이다. 3년 후인 2025년이 마지막 분화로부터 100년이 지난 해이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백두산은 마그마 점성이 높은 활화산이며 소규모 분화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시점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말한다. 하지만 2025년에 폭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천지에서 화산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 및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것은 맞지만 현재는 다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백두산 폭발 시나리오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 영향이다. 만약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용암과 화쇄류가 쏟아져 반경 60km 이내 지역이 초토화되고, 천지 아래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반경 50km 이내의



사람들은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다. 천지에 고인 물 중 일부는 수증기가 돼 치솟고 대부분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 라하르(화산재가 물과 섞여 진흙, 홍수처럼 흘러내리는 현상)로 인해 주변 지역이 매장되는 재난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폭발 시 분출된 화산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 화산재 0.1cm만 쌓여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1cm가 쌓이면 수도, 전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이며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한다. 백두산 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최대 11조 1,9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중 농작물의 피해액은 4조 5,189억 원, 제주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최대 611억 원,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 피해액은 서울에만 130억 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백두산 폭발에 대비하는 우리

결국, 백두산이 폭발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장비와 기술의 발전으로 전조 증상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화산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리핀과 일본은 실제로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두산

은 지리적 위치가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어 연구가 쉽지 않다. 남북이 백두산 공동 연구를 두고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태도 전환으로 인해 무산된 적이 많았다. 백두산 분화 대비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는 이념, 정치, 외교 등의 문제를 떠나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예방책 및 행동 요령 매뉴얼을 만

들어 백두산 분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z@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영화<백두산>포스터
[참조] 뉴시스, 세계 다큐투어

성결인의 선택!

이번 호에서는 3월 개강의 달을 맞이해 성결인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82명의 성결인들이 선택한 대학 생활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결과를 확인해 보자!

나의 대학교 입학 로망은?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대학 MT	21	26%
장학금은 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과탐	15	18%
교실에서 벗어나 더 넓은 환경의 계단식 강의실	14	17%
캠퍼스를 걸으며 장소로 바뀌는 대학 CC♡	9	11%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대학교 미팅	9	11%
대학 생활의 꽃, 교내 동아리 활동	8	10%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멋진 선배	2	2%
기타 (체육대회, 잔디밭 낮잠 등)	4	5%

나의 대학교 입학 로망은?

● 대학 MT ● 과탐 ● 계단식 강의실 ● 대학 CC
● 미팅 ● 동아리 ● 멋진 선배 ● 기타

대학생에게 더욱 추천하는 필수템은?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노트북	47	57%
태블릿 PC	35	43%

대학생에게 더욱 추천하는 필수템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꿀 강의는?	응답 인원	응답 비율
팀플, 발표가 없는 강의	33	40%
수업 시간보다 일찍 끝내주는 강의	16	19%
시험 이외의 다른 과제가 없는 강의	13	16%
내가 원하는 교수님의 강의	12	15%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강의	4	5%
기타 (실질적인 현장 교육, 공부가 흥미로운 강의 등)	4	5%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꿀 강의는?

● 팀플, 발표가 없는 강의 ● 일찍 끝나는 강의
● 과제가 없는 강의 ● 원하는 교수님의 강의
● 오픈북 시험 강의 ● 기타

조별과제 최악의 빌런은?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발표 하겠다고 다른 역할에 참여하지 않고 발표 당일 결석하는 빌런	25	30%
연락이 되지 않고 잠수하는 빌런	24	29%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하면 나타나는 무임승차 빌런	17	21%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보이는 글 대충 조사하는 빌런	9	11%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수정사항만 나열하는 빌런	3	4%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고집불통 빌런	3	4%
기타 (위의 선택 사항 모두 다)	1	1%

조별과제 최악의 빌런은?

● 발표자 결석 빌런 ● 잠수 빌런 ● 무임승차 빌런
● 출처 없는 빌런 ● 수정사항 나열 빌런
● 고집불통 빌런 ● 기타

성결인의 한마디!

#대학생활 꿀팁

학술 정보관에 책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 공강 시간에 이용하기

- 박효리(영문21)

과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기회

- 박선욱(도디17)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와야 한다면 교시는 가급적 피하는 걸 추천

- 김채은(사복21)

교내 콘로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 사람을 대하는 사회생활까지 배울 수 있다

- 김민수(사복18)

학술정보관 2층에서 DVD 대여 후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 이서현(도디22)

1, 2학년 때 자신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보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학교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상담 등을 활용하여 설정해 보기

- 서주애(행정20)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학금 받기

- 강서영(경영19)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기

- 한유진(사복22)

학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들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기

- 양서륜(동물20)

교내 식당 줄 서지 않고 웨이티 어플로 주문하기

- 정유진(사복21)

과 행사를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팁도 많이 얻어가기

- 정희진(유교20)

술은 항상 조절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먹기

- 정준희(행정22)

OT는 갈 수 있다면 꼭 참석하기

- 백인호(도디17)

교내 활동은 학교 오는 날에 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대외 활동을 추천

- 황유미(동물21)

#수강신청 꿀팁

인기 많은 과목은 관심으로 체크하고 담기! 주황색으로 눈에 띄어서 가장 먼저 등록기에 편하다

- 김은지(사복20)

1호 빨간리 클릭해서 튕기는 것보다 1호 늦게 들어가는 게 나을 때가 있다

- 이정원(뷰티22)

수강 신청 화면 미친리 짚어두기

- 윤예빈(행정19)

속도가 불안하다면 수강 신청은 꼭 피시방 컴퓨터로 하기

- 정준희(행정22)

증원 기간 내 틈날 때마다 보고 있으면 원하는 과목은 아니어도 들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기

- 황유미(동물21)

#통학 꿀팁

일반 버스를 타고 요금도 지불하고 사람이 많아서 매일 서서 가지 말고 편하게 학교 안까지 안전한 운행을 하는 셔틀버스 이용하기

- 이채원(뷰티22)

택시 탈 때 에브리타임에서 같이 타고 갈 인원 구해서 돈 아끼기

- 황유미(동물21)

명학역에서는 택시 타는 게 최고! 비로 안 잡힐 때가 많으니 지하철에서 내려가기 전에 미리 잡아두는 걸 추천

- 한혜원(국개협22)

기자칼럼



박제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은 학창 시절 가해자 연진과 친구들에게 각종 폭력과 성추행을 당한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동은이 고데기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화제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실제로 있다는 뉴스를 접한 후 필자는 학교폭

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가해자는 부모의 경제적 여유, 외모, 체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위를 과시하고 어울리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렇게 학교폭력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는 아무 이유조차 모른 채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된다. 피해자는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만 나 또한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도와주지 못하는 친구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보듬어주는 어른들로 인해 다시 상처받게 된다. 어떻게든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해자의 보복은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다.

최근 TV 프로그램을 통해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가해자에게 복수까지 생각한 그였지만, 그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 지금은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됐다. 그는 “한국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밝히는 것은 사람들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라고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자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이른바 일진과 왕따라는 말이 존재했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았고 모두와 잘 어울렸던 필자였기에 주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지 않았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단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봤다. 앞으로 필자를 포함한 주변에 누군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의심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1388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주변에 누군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의심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1388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만약 이 칼럼을 읽는 당신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방관자라면, 친구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으로 남을 누군가의 학창 시절을 빼앗아, 지옥과도 같은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겼음을 알아야 한다. 책임지고 지난 일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앞으로 절망스러운 나날을 살길 바란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z@sungkyul.ac.kr

체험에세이



김다은 수습기자

지난 1월, 필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비록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그곳의 초등학교생들은 나를 엄청난 어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봤다. 한 달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이가 지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느꼈으며 특히 어른의 태도에 대해 많은 생

각을 하게 됐다.

각자 개성 있는 아동들과 함께 지내며 다양한 성격을 존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나 사회에서 보는 성인의 성격보다 아동들의 성격은 꾸밈이 없었기에 새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동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아동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키즈존과 ‘O린이’ 같은 아동 혐오 표현들이 있다. 노키즈존은 영업장

의 입장 거부로 인해 아동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주린이’, ‘헬린이’와 같은 ‘O린이’라는 접미사가 붙는 단어들은 어린이의 미숙함을 보호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일반화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불쾌감을 주고 조롱의 수단으로 만들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 이런 혐오 표현은 어린이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에서 온다.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필요한 미숙한 행동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에게나 시끄럽고 미숙했던 유년 시절이 있음에도 아동의 행동을 혐오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필자 또한 이전에는 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럽게 느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동을 이해하게 됐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즉 어른은 아이들을 이해하며 따뜻한 공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아동을

무능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시민이 된 나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출근날에 아이들과 함께 썰매장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그곳엔 스케이트를 타는 곳도 있었는데, 처음 타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들 넘어지기 일쑤였다. 자전거를 처음 타 보거나 스케이트를 처음 타던 때를 기억하는가?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이라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 우리는 아동의 미숙함에 관대하며 더 나은 어른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 관대함 속에서 대학생인 우리 또한 성장할 것이며, 인간의 미숙함과 성숙은 끝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글 - 김다은 수습기자 kjig99@sungkyul.ac.kr

성숙과 미숙

버킷리스트

다들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있는가? 필자의 버킷리스트는 아주 사소하고도 소박한 것이다. 어쩌면 흔히 말하는 ‘소확행’일 수도 있다. 바로 제주도로 힐링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멀면서도 가까운 제주도에서 바다와 산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제주도로 3번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숨 가쁘게 관광 명소들을 구경하느라 제대로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한 적이 없었다. 처음 간 제주도 여행은 중학교 3학년 때 가족끼리 간 여행이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다며 부모님께 부탁해 가게 된 여행은 쉴 틈 없이 바쁜 여행이었다. 자연환경들을 위주로 후다닥 구경하며 제주도 구석구석을 보는 데 의의를 뒀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다녀왔다. 이때는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에 맞게 힐링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기억보다는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되는 여행이 됐다. 세 번째는 막 성인이 된 이후 친구들과끼리 다녀온 여행이었다. 이때는 보호자 없이 우리끼리 간 첫 여행이어서 다들 여러 방면에서 예민했고 그저 여행을 무리 없이 계획한 대로 잘 다녀오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물론 해당 여행을 통해 제주도의 명소들과 맛집들을 대부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힐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더 성숙해지고 자립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꼭 버킷리스트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물게 되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친구와 둘이서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뽀뽀하게 많

이 돌아다니는 일정보다는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는 숙소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오늘은 지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버킷리스트를 이룬 뿌듯함을 글로 완전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느끼는 이 행복함을 최대한 기록하고 싶어 이번 호 편집장 노트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다. 다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정해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ud082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주간사설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의 다양한 상징을 찾아서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계(癸)는 검은색, 묘(卯)는 토끼를 뜻하여 올해를 ‘검은 토끼해’라고 부른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성장과 번창을 상징한다고 하다. 그렇다면 2023년 올해는 지혜롭게 성장하며 번창하는 한 해를 의미한다. 우리의 정서에서 토끼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로서, 자녀를 일컬을 때 ‘토끼 같은 자식’이라 부르는 것에서 토끼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끼의 조그맣고 귀여운 생김새와 놀란 듯한 표정에서는 약하지만 선한 동물로, 동시에 재빠른 움직임에서는 영특한 동물로 인식되고, 또한 번식력이 왕성하여 다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달에서는 왜 토끼가 절구를 찧고 있을까

토끼,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달에서 절구를 찧는 모습이다. 중국 설화에 따르면, 토끼가 절구를 찧는 이유는 늑지도 죽지도 않는 약인 ‘불로불사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환웅의 아버지 제

석환인(帝釋桓因)이 보살도를 시험하고자 가난한 노인으로 변신하여 여우, 원숭이, 토끼에게 먹을 것을 청했다. 여우는 생선을, 원숭이는 과일을 가져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토끼는 불 속에 제 몸을 노인에게 공양하였다. 토끼의 소신공양에 크게 감복한 제석환인은 토끼 모습을 달에 그려 후세에 본이 되게 하였다 한다. 달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 두 마리 토끼가 함께 방아를 찧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금슬을 상징한다. 어린이가 창작 그림책 『달토끼』(최영아 작)에서는 달을 사랑하는 토끼가 연못에 떨어진 달 조각을 달에게 돌려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애쓰다 결국 달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문학에 나오는 토끼들

우리의 옛이야기에서 토끼는 꽤 많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한다. 토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로는 『별주부전』(龍主簿傳)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예부터 입으로 전해진 구전설화였던 구토설화(龜兔設話)를 바탕으로 한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이다.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 용왕을 위하여 육지로 나간 별주부, 곧 자라가 토끼를 용궁에 데려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토끼가 간을 빼놓고 다닌다는 말로 잔꾀를 부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친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정탐꾼에게 몰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보장왕의 충신 선도해에게 뇌물을 주

며 살려주길 부탁했다. 이때 선도해가 구토설화를 던지시 알려주었고, 김춘추는 이에 지혜를 얻어 “신라로 돌아가 왕을 설득해 땅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고구려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실제로 토끼의 지능은 50 정도로 호랑이(45)와 거북이(20)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월별로 2월을 의미하는 토끼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돌아나는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명석한 머리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치밀하게 계산한다. 토끼는 생존전략을 위해 굴을 팔 때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토끼는 영특하고 지혜롭기에, 12마리 띠 동물의 한자리를 그릇도 백수의 왕인 호랑이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토끼가 늘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토끼는 잔꾀를 부리며 낮잠을 자다가 결국 느리지만 끈덕지게 최선을 다한 거북이에게 지고 만다.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에 나오는 흰 토끼는 앨리스를 상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여기서 토끼는 회중시계를 보고 “바쁘다 바빠”를 연발하고 지나간다. 작은 앨리스 앞에선 매우 거만하지만 커진 앨리스 앞에선 순한 양이 됨으로써 당시 시대를 살던 소시민상을 풍자한 캐릭터이기도 하다.

기독교에서의 토끼의 상징

기독교에서 토끼는 어떤 의미일까?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이라 하면서 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고 언급된다. 하지만 토끼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독교 풍습도 있다. 흔히 달같이 부활을 상징하지만, 서구권에서는 달과 함께 토끼도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부활절에 토끼 모양의 과자나 빵을 나누기도 한다. 기독교 미술에서도 종종 토끼가 동정녀 마리아 혹은 이브와 함께 그려짐으로써 잉태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벨리니(Giovanni Bellini)가 그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의 빈 무덤 위에 두 마리 토끼가 그려져 있다. 두 토끼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언덕 위로 뛰어가고 있음으로써 부활에 대한 열망을 의미한다.

이처럼 토끼에게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이 존재한다.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처럼, 빠르지만 잔꾀 많은 모습이 아닌, 지혜롭고 재치가 넘치며 부활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삶을 올해의 목표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계묘년을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새해, 토끼 왔네!〉특별전을 연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옛사람들이 토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지금 우리 곁에 토끼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기획전이다. 새해를 맞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교수칼럼

‘비효율의 효율적 측면’에 대하여



류 훈 교수

영화영상학과

효율(效率)의 시대다. 오히려 ‘효율의 시대’라는 말을 지금 꺼내놓기 민망할 정도로 효율은 이 시대의 의식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효율은 곧 ‘선(善)’이며 비효율은 곧 ‘악(惡)’이다. 일상에서 ‘효율적’이란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효율’이란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효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정치성 혹은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다. 하나의 단어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그 반대의 의미를 은폐(隱蔽)함으로써 완성된다. 동의어나 다름없는 ‘살아간다’는 말이 ‘죽어간다’는 이면의 의미를 은폐하면서 가치를 갖듯이 언어는 은폐의 이데올

로기로 작동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효율’이라는 단어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효율’은 왜 옳은 것인가? 누군가는 이 질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볼 때 탄생한다.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비효율’은 왜 나쁜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생산성’에 기준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그 생산성이란 자본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코미디 영화의 대부인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1936년 작(作), 〈모던타임즈(Modern Times)〉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다룬다. 이 영화에서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곳은 공장이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에 의해 무의식까지 지배당하는 인간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효율의 생산성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성을 지적한다. 이때 효율은 인간의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자본의 축적을 위한 가치이다. 효율은 인간의 삶을 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자본의 증식을 위해 종사한다. 심지

어 이 영화에서는 ‘식사기계’까지 우화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기계는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어 생산성을 높이는 상품으로 써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행태에 대한 감독의 통렬한 냉소(sarcasm)로 기능한다. 이 영화가 나온 지 87년이 지났다. 과연 그 80여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 효율적인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자동화 되어 나온 공산품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효율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나 대신 빨래를 해주는 효율적인 세탁기 덕분에 우리는 삶을 더 여유롭게 살고 있는가. 초고속 통신망의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 혹은 절대적 선인 것처럼 떠받드는 그 ‘효율’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의심이 정당하다면 ‘비효율’은 언제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몇 해 전 잠시 가을 나들이를 간 적이 있다. 목적지는 춘천 남이섬이었는데 세 시간이 걸렸다. 평소라면 두 시간 남짓 걸렸을 길이다.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

문이었다. 산의 심장 그리고 옆구리와 복부를 직선으로 뚫어낸 ‘효율적’인 곧은 길 대신, 산의 등선을 구불구불 돌아, 그대로의 문양을 따른 곡선 길을 달려내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효율’은 선이고 ‘비효율’은 악이다. 그런데 효율의 선을 배반하고 비효율의 악을 선택해보니 그 속에서 필자는 늦가을의 정경도, 물들어가는 이파리도, 나무를 타고 오르는 다람쥐도, 꿀을 알 수 없는 하늘도, 차단제를 뚫고 피부를 파고드는 자외선도 오롯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과연 ‘비효율’은 나쁜 것일까. 효율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생산성’에만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닐까. ‘낭만’의 소멸을 아쉬워하지는 것이 아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곁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멍하니 연구실에 앉아 모니터 위를 채우고 있는 수치화된 점수와 지표 값들, 순위가 매겨진 학부(과)의 어지러운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효율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지원센터
  SK그룹 후원
  성균관대학교
SENGKYUNKWAN UNIVERSITY

2023 핵심역량 진단

노·년·학력·국적

기술교직·인사·관리


 참여하기

세계속 I·U·국적

*·이·다·성·남·여

2023.02.28.^{TUE} - 2023.12.29.^{FRI}

■ 조사대상 성경대학교 전체 재학생 (*전학년) ■ 조사기간 2023.02.28.(화) - 12.29.(금) ■ 참여혜택 - 나의 핵심역량 점수 확인 - 강점 역량, 취약 역량, 역량 향상도 파악 - 취약 핵심역량 보완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 S-포인트 0.1점	■ 참여방법 - 통합역량개발시스템 로그인 - [핵심역량진단] 메뉴 클릭 - 검사 실시 ■ 이벤트 04.14.(금)까지 진단에 참여한 전체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229명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지급 ■ 문의 교육혁신지원센터(031-467-8451, 8442)
--	--